

여름이 아니어도 좋다 '취향 저격' 바다를 만나다

서해안의 보석, 부안군에는 저마다 다른 색깔을 지닌 다섯 개의 아름다운 해변이 있습니다. 활기찬 가족 나들이부터 고요한 섬 여행까지, 당신의 취향에 꼭 맞는 부안의 바다를 찾아보세요!



1 백사청송의 휴식을 만나다

서
해
의
진
주

변산해수욕장

흔히들 바다 하면 동해를 떠올리지만, 부안의 변산해수욕장은 서해만이 가진 고요하고도 깊은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1993년 개장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고운 모래사장과 이를 감싸 안은 푸른 송림이 어우러져 '백사청송(白沙靑松)'이라 불립니다. 변산해수욕장은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며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인근에 설치된 오토캠핑장을 시작으로 전기시설이 가능한 야영장(80면), 스토리센터, 노을바라기(전망대), 비치가든(물놀이장), 노을쉼터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여름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터를 무료로 운영해 가족 단위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 소나무 숲 사이로 부는 바람, 파도가 빚어낸 기암괴석



고
요
한
휴
식
처

모항해수욕장

변산반도의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나타나는 작은 아지트, 모항해수욕장, 규모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풍경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울창한 송림 아래 텐트를 치고 앉아 있으면, 서해의 낙조가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장관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관광지보다 조용히 파도 소리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께 모항은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3 채석강으로 떠나는 신비로운 탐험

자연이
조각했나

격포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은 수천만 년의 퇴적층이 만든 채석강과 맞닿아 있어, 마치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낮에는 채석강의 해식동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고, 저녁에는 격포항의 싱싱한 회 한 점과 함께 서해의 붉은 노을을 안주 삼아 보세요. 오감이 즐거운 여행, 격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솔향기 가득한 은빛 모래길 '바람이 건네는 위로'

숲
멍
바
다
멍

고사포해수욕장

끝없이 펼쳐진 고운 모래사장과 그 뒤를 든든하게 지키는 푸른 소나무 숲. 고사포해수욕장은 자연이 준 가장 편안한 쉼터입니다. 뽀뽀한 송림 아래 텐트를 치고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숲멍'과 '바다멍'을 동시에 즐겨보세요. 물이 빠진 뒤 드러나는 드넓은 갯벌은 아이들에게는 자연 학습장이, 어른들에게는 조용한 산책로가 되어줍니다. 번잡한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을 때, 고사포의 솔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5 파도마저 조심스러운...섬이 숨겨둔 비밀의 시간



배
타
는
설
렘

위도해수욕장

일상의 소음에서 완벽히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격포항에서 배를 타고 50분, 고슴도치를 닮은 섬 '위도'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은빛 모래가 드넓게 펼쳐진 위도해수욕장은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기암괴석과 밤하늘을 수놓는 무수한 별빛은 오직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번 여름, 조금 더 특별한 바다를 꿈꾼다면 위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어보세요.